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

(토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6

두 왕국의 충돌 및 교회의 일과 책임

성경: 마 6:10, 12:26, 28-29, 엡 6:10-12, 계 12:10, 11:15

- I. 우주 안에는 두 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이 있다 — 마 6:10, 33, 12:26, 28.
- A. 어떤 왕국은 어떤 생명의 총체이다.
 - 1.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갖고 계시며, 이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이 존재하게 된다 — 엡 4:18, 마 12:28.
 - 2. 사탄은 그의 악한 생명을 갖고 있으며, 그 생명으로부터 사탄의 왕국이 존재하게 된다 — 요 8:44, 마 12:26.
 - B. 창세기 2장 9절에서 하나님과 사탄을 나타내는 표징인 두 나무는 두 근원이다. 이 두 근원의 결과가 두 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이 된다 — 마 12:26, 28.
 - C. 온 인류는 단지 인간 생명의 왕국만이 아니라, 더욱더 사탄의 생명의 왕국이다 — 마 13:38, 요 8:44, 행 13:10, 요일 3:10.
 - 1. 인류는 사탄의 생명과 그 모든 활동의 총체가 되었다 — 요일 5:19.
 - 2. 사람의 왕국은 사탄적인 왕국, 곧 사탄의 왕국이 되었다.
 - D. 이 시대의 신인 사탄은 이 세상의 왕이며,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이다 — 요 12:31, 14:30, 16:11, 고후 4:4, 엡 2:2.
 - 1. 사탄에게는 그의 권세와 그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의 천사들은 그의 부하들로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이다 — 행 26:18, 마 25:41, 엡 6:12.
 - 2. 사탄은 그의 왕국, 곧 어둠의 권세를 갖고 있다 — 골 1:13.
 - E. 이 땅에는 두 왕국, 곧 어둠의 왕국과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지금 이 두 왕국은 이 땅에서 서로 맞서고 있다 — 행 26:18.
- II. 하늘에 속한 왕이신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기 때문에, 두 왕국은 서로 충돌한다. 전투가 맹렬히 벌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싸울 필요가 있다 — 엡 6:12.
- A.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의 전쟁이다 — 마 12:26, 28.
 - 1. 영적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는 것이다 — 계 12:10.
 - 2.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의지를 행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 마 6:10, 12:28.
 - B. 우주 안에는 두 가지 큰 원칙, 곧 하나님의 권위와 사탄의 반역이 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특별한 싸움은 권위와 반역에 관계된 것이다 — 행 26:18, 골 1:13.

1. 반역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이다 — 사 14:12-14, 겔 28:2-19.
 2. 비록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슬러 반역했고,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반역이 계속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 계 11:15.
 3. 하나님의 왕국은 반역을 정복하는 능력이다 — 막 4:35-41.
 4. 육체 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심으로 써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실 수 있는 영역을 세우러 오셨다 — 요 1:1, 14, 3:3, 5, 18:36.
- C.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 마 12:28.
1.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주님은 싸우고 계셨고, 사탄의 왕국을 떨하고 계셨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고 계셨다 — 마 12:28, 막 3:23-28, 눅 9:1.
 2.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영께서 권세를 잡으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그곳에는 귀신들이 설 자리가 없다 — 마 12:28.
 3.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께 반대하고 반역하는 것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 마 12:28.
- D. 마태복음 12장은 사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강탈한 강한 자라는 것을 계시하며, 또한 강한 자의 강탈하는 손에서 사람들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그를 결박해야 한다는 것을 계시한다 — 마 12:29.
1. 주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기 전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셨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비결이다.
 2.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집’은 사탄의 왕국을 가리키고, ‘살림살이’는 타락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타락한 사람들은 사탄 아래 있고, 사탄의 그릇들 곧 도구들이며, 사탄은 이들을 이용하려고 그의 집에 가두어 둔다.
 3.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타락한 사람들을 사탄의 왕국에서 건져 내려면, 반드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강한 자를 결박하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다 — 막 9:25-29.
 4. 이것이 곧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 고후 10:3-5.

III.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것이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올 책임을 지고 있다 — 마 6:10, 12:22-29, 계 11:15, 12:10.

- A. 교회는 왕국을 이끌어 오려는 목적으로 산출되었다 — 마 16:18-19, 18:17-18, 계 1:6, 9, 11:15.
1. 교회의 책임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영속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는 것이다 — 계 12:10, 11:15.
 2. 이 땅에서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는 것이다.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3. 교회는 하늘의 뜻을 땅으로 가져오고 하늘의 뜻을 땅에서 수행하는 책임을 진다 — 마 6:10, 7:21, 12:50.
- B. 하늘의 다스림 아래서 존재하게 된 교회는 하늘에 속한 다스림에 복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한다 — 마 16:19, 엡 6:10-18.

1. 천국이 세워지려면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 — 마 12:22-29.
 2. 교회의 책임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치르신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탄에 맞서 수행하신 승리에 찬 일을 반드시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 — 히 2:14, 요일 3:8 하, 골 2:15, 시 149:5-9.
- C.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 마 6:10.
1. 왕국이 임하는 것은 자동적인 일이 아니다. 기도가 없다면 왕국은 임할 수 없다.
 2. 교회의 기도는 사탄을 제압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 마 16:19, 18:18.
 3. 교회는 반드시 하늘의 권위가 땅에서 표현되게 하는 하늘의 출구가 되어야 한다 — 마 16:18-19, 18:18.
 4.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함께 수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 마 6:10, 고후 10:4, 엡 6:12.
- D.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원수를 내쫓기 위해 전쟁의 기도를 말해 내야 한다.
1. 그러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원수를 적대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2. 싸우는 기도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이끌어 오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한다 — 마 6:10.
 3.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이 땅에서 다스리실 수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싸우는 기도, 곧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 시 144:5, 사 64:1.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영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오게 하심

마태복음 12장 28절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영께서 권세를 잡으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그곳에는 귀신들이 설 자리가 없다. 여기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는 왕국을 위한 싸움이 단지 사람 혼자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에 의한 것임을 본다. 이 절에서 주님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오게 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께 반대하는 상황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주님은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주의하신다. 28절에서 그분은 천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말씀하신다. 그때까지도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 그의 살림살이를 강탈함

29절에서 주님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기 전에 먼저 사탄을 대항하여 싸우셨음을 계시한다. 이 절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의 집에 들어가 살림살이를 강탈하겠습니까? 결박한 후에야, 그의 집을 철저히 강탈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집’은 사탄의 왕국을 의미하며, ‘강한 자’는 사탄, 즉 악한 자이다. ‘살림살이’로 번역된 헬리어 단어는 또한 도구들, 기구들을 의미하며, 따라서 물건, 물품이다. 사탄 아래 있는 타락한 사람들은 사탄이 이용하는 사탄의 그릇들이고 도구들이다. 그들은 사탄의 집, 곧 사탄의 왕국 안에 보관된 사탄의 물건들이다.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먼저

사탄을 결박하셨음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단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만을 보았다. 그들은 사탄, 곧 강한 자가 결박된 것은 보지 못했다. 따라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비방으로 인해 주어진 기회를 영적 전쟁의 비밀을 계시하는 데 사용하셨다. 겉으로 보기에 주님은 단지 귀신들을 쫓아내고 계셨지만, 사실상 그분은 싸우고 계셨고 강한 자를 결박하고 계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오늘날 왕국을 건축하려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함을 보여 준다.

강한 자를 결박하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에 갈 때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그분은 귀신들을 쫓아내실 수 있었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는지 묻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21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러나 이러한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당신이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런 종류의 귀신들을 쫓아낼 수 없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분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기 전에 분명히 금식하며 기도하셨음을 가리킨다.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한다. 주님은 은밀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지 못했다. 우리는 은밀히 금식하고 은밀히 기도하는 것을 주님에게서 배워야 한다. 나는 주 예수님께서 땅에 계셨을 때, 싸움을 싸우시고 강한 자를 결박하시기 위해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셨다고 믿는다. 우리 모두는 오늘날 동일한 영 안에 있어야 한다. 매일 우리의 영은 금식하는 영과 기도하는 영이 되어 날마다 강한 자, 즉 어둠의 왕국의 왕인 사탄을 결박할 수 있어야 한다.

사탄은 땅에 어둠의 왕국을 갖고 있으며, 온 땅은 그의 강탈하는 손 아래에 있다.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기란 어렵다. 타락한 사람마다 사탄의 집에 있는 그릇이다. 사탄의 집은 그의 왕국이며 그의 집에는 많은 그릇들, 즉 많은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 사탄의 집에서 타락한 사람을 끄집어내려면, 우리는 기도와 금식으로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 이것이 천국을 세우기 위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은 신약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는 사탄이 왕국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강탈하는 강한 자라는 것과 그의 강탈하는 손에서 사람들을 건져 내기 위해 그를 결박해야 한다는 것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강한 자를 결박하는 길은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다. 12장에 계시된 전쟁은 앞의 열한 장에서는 보지 못한 것이다. 그 장들에서 우리는 안식과, 머리와, 몸의 지체들을 돌아보기 위해 규례들을 깨뜨림을 본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의 왕국은 보지 못한다. 땅 위에는 두 왕국이 있으니, 하나는 어둠의 왕국이고 다른 하나는 빛 안에 있는 천국이다. 이 두 왕국은 지금 땅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쟁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의 집의 살림살이를 강탈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참된 계시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마태복음 12장을 읽지 못했는데, 이는 그들이 왕국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왕국은 단지 하나의 교리적인 용어이거나 또는 장래로 연기된 어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모든 것이 하늘에 속한 왕국을 세우시기 위한 것임을 안다. 우리는 왕국 백성들이다. 오늘날 이 두 왕국 사이의 전쟁은 맹렬하다. 주님의 사역의 계속은 이 전진된 계시를 위한 기회를 산출했다.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33장, 420-423쪽)*

기도와 하나님의 원수

기도는 범주로 볼 때, 하나님의 원수와 관계된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원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 가운데서 공격을 받고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의 원수도 성경에 있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이다. 하나님의 권위는 우주 가운데에 반역적인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주 안에서 좌절과 제한을 받는다.

우주 가운데 하나님과 그분의 원수인 사탄 사이에 아주 커다란 충돌이 있다. 성경은 생명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한 전쟁의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성경에는 전쟁의 노선이 있다. 사탄은 먼저 반역하고 거역하기 위해 일어났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처리하시기 위해 오심으로 우주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 오

늘날 세계적인 정치가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도모하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그들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과 관계된 것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언제 인류에게 평화가 올 것인가? 하나님의 원수가 묶여서 무저갱에 던져질 그날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때 온 우주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인류 가운데서도 전쟁들이 그칠 것이다. 인류의 전쟁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우주적인 전쟁으로부터 유발된다. 우주적인 전쟁이 그칠 때, 더 이상 사람들의 전쟁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면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 또 다른 한 면으로 하나님의 원수를 쫓아내기 위해 전쟁의 기도를 수행해야 한다.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원수를 대적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주 가운데에는 주요 세 존재들, 즉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 있다. 결코 사람을 작게 보지 말라.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경시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은 우주 가운데 세 개의 큰 머리들로 간주될 수 있다. 사탄의 의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뒤엎는 것이다. 하나님의 갈망은 반역적인 사탄을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을 직접 처리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사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깨뜨릴 방법을 갖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탄을 처리하는 일을 하셔야 하고, 사탄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좌절시키기 위한 일을 한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 일은 사람과 관계있다. 사람은 우주 가운데서 중요한 존재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위를 차지하시고, 사람이 사탄의 편에 선다면 사탄이 우세하게 된다.

성경에 하나님과 사탄의 충돌과 관계된 진리의 노선이 있다. 이 노선은 필연적으로 사람을 얻으려는 하나님과 사탄의 투쟁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얻기 원하시고, 사탄도 사람을 얻기 원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과 협력하기를 원하시고, 사탄도 사람이 그와 협력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사람과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사탄도 사람과 섞이기를 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도란 무엇인가? 한 면으로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다. 다른 한 면으로 기도는 사람이 사탄을 대항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을 사탄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것이고 사탄을 몰아내는 것이다.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일반적인 관념은 그들의 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사람의 혼을 위한 참된 기도는 사탄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것은 단지 그의 혼이 지옥에 가는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그것은 사탄이 그를 지배하는 문제이다. 그가 지옥에 가는 것은 사탄이 그를 지배한다는 더 큰 문제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사탄을 그에게서 쫓아내기 위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그를 구출하기 위해, 그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참된 기도들은 항상 한 면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올 것이고, 다른 한 면으로 사람에게서 사탄의 세력을 몰아낼 것이다. 한 죄인이 구원받을 때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사탄의 세력이 패한 것을 상징하고, 또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것을 상징한다. 이것이 전쟁의 기도이다.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사탄을 처리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큰 원칙이다. 그보다 그분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사탄을 처리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에게서 나온 일을 제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요일 3:8)라고 말합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렇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육체 안에서 사탄을 처리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분은 사람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으로 오셨고, 사탄을 처리하시기 위해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원수를 처리하시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셔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시다. 사람이 죄인들의 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없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를 위해 기도한 결과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직접 구원하

실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은 간접적이다. 즉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된다. 사람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사탄의 편에 서 있는지를 보여 준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그것은 우주적인 충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원수에 대적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여러분의 기도는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고,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면에서는 하나님의 원수를 굴복시킨다.

모든 참된 기도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기도이다. 가령 어떤 형제의 집에 화평이 없다고 하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툰다. 여러분이 참으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들을 위해 싸우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의 가정에서 다투게 하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진정으로 말하고 있다. 남편과 아내가 다투는 이유는 사탄이 그들 사이에 지위를 얻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한 면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고, 다른 한 면으로 하나님의 원수를 몰아낸다. 그때 그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사탄의 세력은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참된 기도이다.

이것은 또한 교회를 위한 기도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교회 가운데 의견의 차이와 논쟁이 있는 이유는 사탄이 지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고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는 기도를 해야 한다. 모든 참된 기도에는 이중의 목적이 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는 것이고,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면에서는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공하시도록 할 뿐 아니라 사탄을 패배하게 한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사탄은 더욱 패배할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더더욱 올 것이다.

하나님의 원수의 위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의 위치를 볼 것이다. 영적 전쟁을 언급하는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원수, 곧 어둠의 세력이 공중에 있다고 말한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공중에 있다고 말하는 절들이 여러 군데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수의 위치는 공중이다. 다른 면으로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원수가 활동하는 영역이 땅 위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사탄은 공중을 그의 거처로 빼앗고 땅을 그의 활동의 영역으로 통제한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오늘날 온 땅은 한 면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지만, 다른 한 면으로 여러분이 도처의 상황을 관찰한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위를 주의하지 않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 이유는 온 땅이 사탄에 의해 강탈당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그 상황을 머리에 그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탄은 공중에 있고, 사람은 땅 위에 있음을 볼 것이다. 온 땅은 공중의 통제 아래에 있으며, 사람은 사탄의 통제 아래에 있다. 다니엘서 10장은, 다니엘이 진지하게 기도하고 깨닫기 위해 그의 마음을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가 상달되었음을 알리시기 위해 그에게 하늘에서 한 사자를 보내신 것을 계시한다. 그 천사는 공중에서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마주치게 되어 지나갈 수 없었다. 싸움은 삼 주 동안 계속되었다. 결국 미가엘이 와서 그 천사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천사는 공중을 통과해서 지상에 있는 다니엘에게 갈 수 있었다. 성경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주 가운데 있는 영적인 상황들을 알게 된다. 사탄은 공중을 강탈하고 땅을 통제한다. 땅 밑에 있는 음부를 더한다면 우주 가운데 있는 네 장소 중에 세 장소가 사탄의 손 아래에 있다. 오직 하늘만 하나님을 위해 남아 있다. 이것이 사탄의 위치이다.

기도의 위치

기도의 위치는 승천의 위치이다. 승천의 위치에서 기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사탄의 통제 아래에 떨어진다. 참된 기도들은 항상 하늘의 영역에서 표현된다. 펜 루이스 여사는 언젠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싸우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2장에 있는 승천의 위치를 분명히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여러분이 땅 위로 떨어지

게 되면, 사탄의 손 아래에 있게 되고 사탄을 처리할 수 없을 것이다. 다니엘의 기도는 한 면으로 땅 위에 있었고, 다른 한 면으로 하늘의 영역에 있었다. 그의 상태와 본성은 완전히 하늘에 속한 것이었으므로 그의 기도는 원수를 처리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승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일에 의해 중요하고 육체 안에서 행동한다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고 기도할 수 없다. 주님께서 그분의 공활을 보이시어 여러분이 승천의 위치를 회복할 때까지, 여러분은 그러한 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다.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확실히 땅 위에 있다. 다른 사람들이 닦고 여러분이 그 닦이에 연루될 때, 여러분은 기도하는 위치를 상실한다. 그러한 상황 아래에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할 길이 없다.

다니엘의 기도를 읽을 때 여러분은 그가 참으로 승천한 사람이었고,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었으며, 보좌를 만진 사람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는 땅 위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하늘의 영역 안에서 살았다. 그러므로 그의 기도는 능력이 있었고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것이 기도의 원칙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일과 같은 큰 것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이것이 원칙이고, 우리 자신의 건강과 가족과 사업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이것이 원칙이다. 사탄의 위치가 공중임을 항상 기억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땅 위에서 기도한다면 사탄의 통제 아래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로 가서 기도한다면 위에서 아래로 기도하게 된다. 군사 전략에서 이것은 고지를 점령하여 아래에 있는 상황을 내려다보고 통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기도들과 같은 것이다. 향으로 말하자면 그 기도들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으로 말하자면 그 기도들은 하늘에서 아래로 기도해 낸 것이다. 그 기도들은 모두 하늘의 영역에서 표현된 것이므로 하늘에서 쏟아부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면에서 우리의 기도는 보좌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들과 같아야 하지만, 원수를 처리하는 면에서 우리의 기도는 보좌에서 아래로 쏟아부어진 것이어야 한다. 참된 모든 기도의 사람들은 하늘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으며, 보좌로부터 기도한다.

보좌 위에 있는 기도

방금 언급한 그러한 기도는 보좌에 있는 기도, 심지어 다스리는 기도이다. 그러한 경우에 사람의 감정과 성질과 육체와 의견과 불평은 철저히 처리되어야 한다. 우리가 불평하거나 화를 낼 때마다 우리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며, 기도하기 위한 승천의 위치를 상실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기도할 길이 없게 된다.

전쟁의 기도

하늘의 영역과 하나님의 보좌에서 표현된 모든 기도는 전쟁의 기도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며 부활하고 승천한 사람이다. 그는 땅에서 훨씬 높이 떨어진 보좌 위에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 그가 그러한 영역에서 표현하는 기도들은 공중에 있는 마귀를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올 수 있는 기도들이다. 그러한 기도는 마치 다니엘의 기도처럼 하늘에 속한 것들을 땅으로 가져올 수 있다. 그것은 공중을 뚫고 하늘의 권위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 하늘의 권위를 땅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이 싸우는 기도이다.

생각해 보라.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죄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에 있겠는가? 모든 죄인들은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공중에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강탈하고 통제하는 어떤 자가 있기 때문에, 죄인들은 복음을 영접하는 데 방해받고 성도들은 주님을 추구하는 데 방해받는다. 그러므로 단지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만지기 위해 일어나야 하고, 하늘에 속한 영역 안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권위가 땅 위에 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볼 것이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주님

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을 볼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오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땅 위에 이루시도록 하는 싸우는 기도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싸우는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분의 큰 기쁨에 따라 그분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만짐으로써 하늘에서부터 기도를 피붓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이 땅과 공중과 어둠의 세력들보다 위에 있고, 하늘들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이 말하는 기도들은 전쟁의 기도들이다. 이러한 요점을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주의해야 할 초점을 사람에게서 마귀로 돌릴 것이다. 어떤 죄인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오, 하나님, 그가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를 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그에게서 쫓아내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한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다툰 때, 여러분은 그 형제나 자매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두 눈은 그 형제와 그 자매가 어둠의 세력 아래에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은 형제나 자매가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 있는, 그리고 그들 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일 것이다. 이것이 에베소서 6장에 언급된 싸움이다. 이것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에서 다루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이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형제자매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있다. 가정에 있는 문제들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있다. 영적인 전쟁의 기도의 대상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 있는 마귀이다. 우리가 하늘의 영역 안에 있다면, 그러한 승천의 기도들, 즉 전쟁의 기도들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전쟁의 기도들은 사탄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기 위한 것이다. (기도 레슨, 318-328쪽)